

## 『黃帝內經』의 少陽主骨의 의미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 韓醫學古典研究所<sup>2</sup>  
辛相元<sup>1, 2\*</sup>

### A Study on the Meaning of Shaoyangzhugu(少陽主骨) in *Huangdineijing*

Shin Sang-won<sup>1, 2\*</sup>

<sup>1</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2</sup>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his paper tried to explain the meaning of Shaoyangzhugu in *Huangdineijing*.

**Methods** : The opinions on these matters that can be found in the past studies are analyzed to asses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oday's explanations on the meaning of Shaoyangzhugu.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a more rational way of understanding that can supplement the opinions before.

**Results** : The opinions that fail to provide a rational explanation on Shaoyangzhugu were disposed. It was found that the explanation of Shaoyangzhugu through the Shaoyang's pivot function has a potential of providing a rational understanding of Shaoyangzhugu. Following this, this study made a deduction based on the functions of gallbladder found in the *Huangdineijing* and explained the Shaoyang's pivot function. This study then proceeded to provide an explanation regarding Shaoyangzhugu based on this.

**Conclusions** : Shaoyangzhugu in *Huangdineijing* is a function to maintain homeostasis of the skeleton of the whole body by Shaoyang's pivot function.

**Key Words** : Shaoyangzhugu(少陽主骨), Guyao(骨繇), Skeleton(骨格), opening, closing and pivot(開闔樞), pivot(樞)

\* Corresponding Author : Shin Sang-wo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9183, E-mail : rulr@nate.com

Received(January 28, 2018), Revised(January 31, 2018), Accepted(January 31,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序 論

『黃帝內經』에 나타난 ‘骨’에 대한 한의학 이론으로는 腎主骨이 폭넓게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少陽主骨 이론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임상에서의 활용 폭도 넓지 않은 현실이다. 국내 학계에는 少陽主骨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해 온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임상 한의학에서 筋骨格系 질환의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sup>1)</sup>, 자연히 筋骨格系 질환에 대한 다양한 임상 경험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筋骨格系 질환에 대한 관점도 다양해져 전신 骨格의 부정렬이나 신경계 기능의 이상 등 전신적 차원의 원인으로부터 치료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미 임상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병리적 관점과 치료 방법을 이론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한의학 문헌상의 근거나 한의학 이론의 기초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骨格과 관련된 의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少陽主骨에 대한 연구는 시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少陽主骨의 의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발표된 바 없으며, 주로 中醫學界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中國知網(CNKI)에서 少陽主骨을 주제어(subject)로 검색하면 총 38개의 연구결과가 검색된다. 다른 주제에 비하여 연구의 수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의 연구 결과가 38개 중 29개로 과거에 비해 최근에 주목받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근의 새로운 연구 결과들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少陽主骨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 중에서 문헌에 대한 고찰이 포함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이 중에서 관점 및 견해가 중복되는 경우를 배제하였다. 그 중에서 최초로 해당 관점을 제기한 연구나 관점에 대한 설명이 명료한 연구를 대상으로 2차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여러 연구들에 산재하는 다양한 관점을 범주화하여 추출하며, 추출된 관점들을 바탕으로 해당 관점에 대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연구가 지닌 少陽主骨의 의미에 대한 견해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고 少陽主骨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 本 論

### 1. 『黃帝內經』에 나타난 少陽主骨 관련 條文 고찰

少陽主骨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少陽主骨이 제기된 『黃帝內經』의 서술을 살펴보아야 한다.

#### 1) ‘少陽主骨’이 나타난 條文

‘少陽主骨’의 명제는 『靈樞經脈』과 『素問熱論』에 제시되어 있다. 『靈樞經脈』에는 足少陽膽經의 所生病이 기술되어 병증의 실질적 발현 양상과 결부되어 있다.

膽足少陽之脈, …… 是主骨所生病者, 頭痛, 頷痛, 目銳眦痛, 缺盆中腫痛, 腋下腫, 馬刀俠癭, 汗出振寒, 虐, 胸脇肋髀膝外至脛, 絕骨, 外果前及諸節皆痛, 小指次指不用.<sup>2)</sup>

『靈樞經脈』

張景岳은 『靈樞經脈』의 少陽主骨에 대해 膽의 汁液이 苦味인 것과 『素問宣明五氣』, 『靈樞五味』 등

1) 보건복지부의 2015년 3월 발표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인 환자의 비율이 50.2%로 절반을 차지했다.(제3차 한방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2.

에서 “苦走骨”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膽이 骨을 주관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膽氣와 骨質이 공통적으로 ‘강함[剛]을 추구하는 것을 근거로 膽病이 骨로 과급된다고 보았다.<sup>3)</sup> 楊上善은 骨은 水로 생하는데 足少陽은 木으로서 水인 骨에 의해 생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足少陽의 病이 거꾸로 骨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sup>4)</sup>

三日, 少陽受之, 少陽主膽[骨], 其脈循脇絡於耳, 故胸脇痛而耳聾.<sup>5)</sup>

『素問·熱論』

한편, 『素問·熱論』의 내용은 王冰本에는 “少陽主膽”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新校正 이래 여러 注家들은 이 내용을 “少陽主骨”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 문장에 대한 新校正 按語에서는 『全元起本』, 『甲乙經』, 『太素』를 근거로 이곳의 “少陽主膽”을 “少陽主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시된 全元起的 注釋에서는 肝膽의 表裏 관계를 바탕으로 肝主筋하며 筋이 骨에서 모이는 관계를 통해 少陽主骨을 설명하였다.<sup>6)</sup> 楊上善은 足少陽이 肝과의 표리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같은 少陽인 手少陽三焦가 腎의 腑인 膀胱과 맺고 있는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해, 기본적으로 肝腎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sup>7)</sup>

## 2) 少陽主骨에 관련된 證候가 나타난 條文

- 3) 張介賓 著. 懸吐國譯 類經. 서울. 범인문화사. 2017. p.518. “膽味苦, 苦走骨, 故膽主骨所生病. 又骨爲幹, 其質剛, 膽爲中正之官, 其氣亦剛, 膽病則失其剛, 故病及於骨. 凡驚傷膽者骨必軟, 卽其明證.”
- 4) 錢超塵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28. “水以主骨, 骨生足少陽, 故足少陽痛病還主骨也.”
-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6.
- 6) 王冰 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157. “新校正云, 按《全元起本》, 膽作骨. 元起注云, 少陽者肝之表, 肝候筋, 筋會於骨, 是少陽之氣所榮, 故言主於骨. 《甲乙經》《太素》等並作骨.”
- 7) 錢超塵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519. “肝足厥陰主筋, 三焦手少陽與膀胱合, 膀胱腎府, 表裏皆主骨.”

『靈樞·根結』은 開闔樞 이론을 활용한 논설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편으로, 開闔樞의 折에 의해 나타나는 병증이 기술되어 있다.<sup>8)</sup>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 樞折卽骨繇而不安於地, 故骨繇者, 取之少陽, 視有餘不足. 骨繇者, 節緩而不收也. 所謂骨繇者, 搖故也, 當窮其本也.<sup>9)</sup>

『靈樞·根結』

“樞折”은 少陽樞가 손상된 것이므로<sup>10)</sup> 少陽樞의 작용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에 따른 병증으로 “骨繇而不安於地”가 기술되어 있는데, “骨繇”은 “節緩而不收”라고 하여 關節이 늘어져 四肢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으로 서술되어 있다.

是主骨所生病者, …… 胸脇肋脾膝外至脛, 絕骨, 外果前及諸節皆痛, 小指次指不用.<sup>11)</sup>

『靈樞·經脈』

이는 『靈樞·經脈』에서 足少陽膽經의 所生病으로 서술된 부분으로 『黃帝內經』에서 직접 少陽主骨이 제시된 부분이다. 足少陽經이 순행하는 부위를 따라 나타나는 제반 통증과 함께 특별히 ‘諸節皆痛’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足少陽經의 순행 부위를 통한 단순한 해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病態이다.

이상은 少陽主骨의 病態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서술들이다. 이외에도 少陽主骨의 기전에 부합하는 병증이 『黃帝內經』의 여러 편에 산재해 있다. 앞에서 설명한 양상에 부합하는 경우들을 선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8) 章楠. 靈素節注類編. 上海.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77. “樞者, 開闔之樞紐也, 故少陽樞折, 其開闔皆參差失度, 不但經脈氣血紊亂, 至於骨節皆縱緩動搖, 而行步不能安於地也, 故當窮究其病之所本. 而取之者, 皆針法也, 藥治自可類推矣.”
-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50.
- 10) 張介賓 著. 懸吐國譯 類經. 서울. 범인문화사. 2017. p.380. “折, 損傷也”
-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2.

少陽終者，耳聾，百節皆縱，目覈絕系，絕系一日半死，其死也，色先青白，乃死矣。<sup>12)</sup>

『素問診要經終論』

“百節皆縱”은 關節이 늘어진 것이니, 『靈樞根結』에서 소개한 骨繇와 매우 유사한 病態를 나타내며 병리기전 상으로도 ‘少陽終’은 ‘樞折’과 비슷하다. 王冰은 “少陽主骨，故氣終則百節縱緩”이라고 하였으며 張志聰도 “少陽主骨，諸節皆屬于骨，少陽氣終，故百節皆縱。經絡篇曰，少陽是主骨所生病者，諸節皆痛.”이라고 하여 少陽主骨의 사례로 보았다.

…… 少陽厥逆，機關不利，機關不利者，腰不可以行，項不可以顧，發陽癱不可治，驚者死。<sup>13)</sup>

『素問厥論』

“機關不利”는 關節의 屈伸할 수 있는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 ‘腰不可以行，項不可以顧’라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설명했다. 역시 關節에 나타나는 病態이다. 韋廉士는 “少陽膽經厥逆，是主骨所生病者，其經居半表半裏，正當肉裏而近骨，表裏之氣，由此出入，故名其經爲樞。其氣厥逆，則樞折而骨病，故機關不利.”라고 하여 이를 少陽主骨의 기전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厥逆”을 ‘折’의 의미로 보고 이를 少陽樞折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앞의 ‘少陽終’과도 그 기전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邪客於足少陽之絡，令人留於樞中痛，髀不可舉，刺樞中，以毫鍼，……<sup>14)</sup>

『素問繆刺論』

“樞”는 “髀樞”를 말하며,<sup>15)</sup> “刺樞中”은 足少陽의 環跳穴 부근을 말한다.<sup>16)</sup>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54.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70.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25.

15) 張介賓 著. 懸吐國譯 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17. p.845. “樞中，髀樞也.”

足髀不可舉，側而取之，左樞合中，以員利鍼，大鍼不可刺。<sup>17)</sup>

『靈樞厥病』

“樞合中”은 “髀樞”로 위와 마찬가지로 足少陽의 環跳穴 부근을 말한다.<sup>18)</sup> 『素問繆刺論』의 문장과 이 문장은 유사한 증후와 치법을 보이고 있는데, 注家들은 대체로 經脈의 순행 노선으로 해석하였다. 關節에 속해있는 병증의 양상과 소속을 살펴보았을 때 모두 少陽主骨의 사례에 부합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少陽之厥，則暴聾頰腫而熱，脇痛，髀不可以運。<sup>19)</sup>

『素問厥論』

少陽令人腰痛，如以鍼刺，其皮中循循然，不可以俛仰，不可以顧，刺少陽成骨之端出血，成骨在膝外廉之骨，獨起者，夏無見血。<sup>20)</sup>

『素問刺腰痛』

…… 不可以俛仰，刺足少陽。<sup>21)</sup>

『素問刺腰痛』

상기 문장들에는 少陽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나 少陽을 통해 치료를 하여 간접적으로 그 원인이 少陽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關節의 병태가 나타나 있다.

이상의 『黃帝內經』 서술을 종합해보면, 少陽主骨에 의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骨繇와 같이 骨을 지칭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로 關節에 발현되는 것

16) 張介賓 著. 懸吐國譯 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17. p.846. “髀樞中，足少陽環跳穴也.”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47.

18) 張介賓 著. 懸吐國譯 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17. p.912. “樞合中，髀樞中也，即足少陽經之環跳穴.”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70.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53.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54.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百節’ 혹은 ‘諸節’이라 표현한 것과 같이 전신적 문제를 언급하거나 髀, 腰, 項, 腋 등 起立하여 인체를 支持하는 重要 關節들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국소적인 關節의 문제가 아니고 전신적 骨 구조의 균형 유지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기존의 少陽主骨에 대한 논의와 그에 대한 비판 및 연구방향 모색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黃帝內經』을 위시한 少陽主骨에 관련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少陽主骨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들을 검토함으로써 현재까지의 少陽主骨에 대한 논의가 少陽主骨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충분히 합리적이 아닌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여 좀 더 나은 이해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기존의 少陽主骨에 대한 논의

우선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少陽主骨에 관한 제반 논점을 추출하고, 이에 따라 각 논점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볼 것이다.

#### (1) 經脈 순행 부위를 통한 少陽主骨의 이해

가장 기본적인 經脈으로서의 少陽의 의미에 입각하여 足少陽膽經의 순행 부위를 바탕으로 少陽主骨의 의미를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 이는 『靈樞經脈』의 足少陽膽經의 所生病에 열거된 많은 骨 관련 부위의 疼痛에 대한 언급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관절’을 명시한 ‘諸節皆痛’의 증후로 인하여 크게 두 개의 관점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足少陽膽經 순행 노선에 국한시켜 해석한 경우와 전신의 관절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로 인식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張志聰은 足少陽膽經의 순행 부위에 국한시켜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였으며<sup>22)</sup>, 楊上善은 足少陽脈 자체가 諸節에 絡한다

고 보아 ‘諸節皆痛’을 위주로 해석하여 전신 다수의 관절을 포괄하는 후자의 입장을 천명하였다.<sup>23)</sup>

현대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점을 계승하여 논하고 있는데, 王鴻度 등은 위와 같은 注家들의 해석을 소개하였다. 張志聰의 해석은 중요한 논점인 ‘諸節皆痛’에 대한 이해를 생략한 관점이라고 비판하였고, 전신적 범위를 포괄하여 이해하는 楊上善을 위시한 후자의 입장에 무게를 실고 있다.<sup>24)</sup> 少陽主骨이 유발하는 骨病이 전신성을 띤다는 것을 명확히 언급하였다.<sup>25)</sup>

范薇 등은 전신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骨, 關節이 足少陽膽經 循行 路線에 속하므로 少陽이 骨을 주관한다고 보아, 순행 노선의 특징이 그 자체로 主骨의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대체로 少陽主骨이 足少陽膽經의 순행 노선에 의거하여 나타나지만, ‘諸節皆痛’에 의하면 少陽主骨의 범위는 단순히 足少陽膽經의 노선에 속한 골, 관절 부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부연하여 다소 절충적인 관점을 취하였다.<sup>26)</sup>

#### (2) 腑인 膽을 통한 少陽主骨의 이해

少陽主骨의 의미가 經脈만이 아니라 그 腑가 되는 膽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설명 또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은 『靈樞經脈』에 대한 張景岳의 注에서 제시된 이래 현대 연구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다.<sup>27)</sup> 景岳은 膽汁이 苦味인데, 苦味는

2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5. p.112. “足少陽脈主骨, 絡於諸節, 故病諸節皆痛也.”

24) 王鴻度 등. “少阳主骨”理论考辨. 中国针灸. 2008. 28(6). p.469. “这显得逻辑上不能自洽, 而且局限骨痛波及的范围, 忽略了经文中一个关键词“诸节皆痛”。”, “可以说杨注领会到经文原意是强调普周性、多部位骨痛, 并把它作为少阳病理的特征, 所以杨氏较深刻地把握了经文的真内涵。”

25) 王鴻度 등. “少阳主骨”理论考辨. 中国针灸. 2008. 28(6). p.469. “所谓“主骨所生病”不是分述某一位骨痛, 而是阐明一种全身性的病理现象。”

26) 范薇 등. 《黃帝內經》“少阳主骨”中医机理探析.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16. 22(5). pp.590-591. “全身绝大部分骨与关节都是足少阳胆经经脉循行之处”, “其中“诸节皆痛”提示“少阳主骨”的基本依据在于足少阳的经脉循行, 但又不只限于经脉循行所及的骨病范围。”, “强调全身多部位的骨与关节疼痛和病变都与少阳有关。”

27) 張介賓 著. 懸壺國譯 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17.

22) 張隱庵. 靈樞集注. 上海. 上海衛生出版社. 1957. p.93. “主骨所生病者, 爲頭痛, 頷痛, 缺盆, 腋下, 胸, 脅, 髀, 膝外, 脛, 踝皆痛, 乃足少陽經脈所循之部分而爲痛也.”

骨로 走하므로 膽이 骨의 所生病을 主한다고 하였다. 또 膽의 中正之官으로서의 특징으로 그 氣가 ‘剛’의 성격을 띠는데 骨의 質 또한 ‘剛’이므로 相通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膽氣가 상한 경우 骨質이 반드시 ‘剛’을 잃고 軟하게 된다고 하였다. 景岳은 少陽主骨의 작용이 骨質을 구성하는 것이며 그 성격은 ‘剛’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范薇 등은 景岳의 이론을 분석하여 양방면으로 재해석하여 少陽主骨의 의미를 설명하였다.<sup>28)</sup> 첫째로 膽汁이 전신 각 臟腑로 輸布됨으로써 臟腑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특히 肝主筋, 腎主骨의 작용이 발휘되어 骨의 滋養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고, 둘째로 少陽 膽腑가 中正之官으로서 발휘하는 氣의 ‘剛’함이 骨質의 ‘剛’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足少陽經의 氣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전신 骨格의 骨質을 견고하고 질기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만약 膽腑의 병증으로 膽汁이 散布되지 못하면 骨質의 滋養에 문제가 생기며, 膽이 ‘剛’을 잃음으로써 骨에 발병한다고 설명했다.<sup>29)</sup>

王鴻度 등도 膽의 작용을 중심으로 少陽主骨을 이해하는 景岳의 관점을 수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少陽主骨에서 말하는 足少陽經脈의 기능이 骨質의 強度와 모종의 내재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少陽主骨이 전신 骨格의 質의 強度를 조절하는 작용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sup>30)</sup> 이는 해당 연구에서 少陽主骨의 의미가 주로 현대적 골관절 질환 중 특히 骨強

度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단초가 된다.

한편, 周震은 張景岳의 전반적인 논지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 첫째로 『靈樞經脈』의 足少陽主骨은 經脈인 足少陽膽經을 의미하는 것이지 六腑 중의 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로 骨所生病은 여러 骨關節의 통증을 말하는 것이지 景岳의 설명과 같이 骨格의 기질성(骨質) 병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sup>31)</sup>

### (3) 少陽主骨의 ‘骨’의 실질을 ‘筋’으로 본 견해

少陽이 表裏 관계에 있는 厥陰, 肝을 통해 筋을 주관하는 작용을 少陽主骨의 실체라고 보는 ‘少陽主筋’의 관점이 나타난다. 이는 全元起의 注를 통하여 처음 제기된 관점<sup>32)</sup>이다. 全元기는 少陽은 肝의 表이며 肝의 징후는 筋에서 살피고 筋은 骨에 모이는 관계가 있어, 少陽之氣가 筋을 영화롭게 하는 작용을 일컬어 ‘主骨’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sup>33)</sup> 즉 筋이 骨에 모이는 까닭으로 ‘主骨’이라 한 것이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은 ‘主筋’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全元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楊英昕 등은 足少陽主骨所生病이 실질적으로는 ‘少陽主筋’이라고 논하기도 하였다.<sup>34)</sup>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少陽主骨 기전에 의하여 발현되는 병증을 軟組織 손상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司譽豪 등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첫째로 筋이 비록 骨에 붙지만 筋이 骨과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로 『黃帝內經』에 이미 ‘肝主筋, 腎主骨’의 언급이 있는데 ‘少陽主筋’을 또

p.518. “膽味苦, 苦走骨, 故膽主骨所生病。又骨爲幹, 其質剛, 膽爲中正之官, 其氣亦剛, 膽病則失其剛, 故病及於骨。凡驚傷膽者骨必軟, 卽其明證。”

28) 范薇 등. 《黃帝內經》“少陽主骨”中醫机理探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6. 22(5). pp.590-591. “少陽胆腑強弱骨”

29) 范薇 등. 《黃帝內經》“少陽主骨”中醫机理探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6. 22(5). pp.590-591. “胆汁散于胃腸, 分布濡養全身各臟腑, 各臟腑才能正常行使其功能, 肝主筋, 腎主骨的作用才能得以体现.”, “足少陽經脈受胆的剛氣, 正是在“剛”上对全身骨格施加影响”, “因此当胆腑发生病变时, 其“胆汁”不布四肢, 则骨失所养, 胆病而失其刚, 病及于骨”

30) 王鴻度 등. “少陽主骨”理論考辨. 中國針灸. 2008. 28(6). p.469. “換言之, 足少陽經脈的功能与骨質強度有某种內在关系.”, “而“少陽主骨”是謂足少陽乘所属胆腑“剛”氣, 对全身骨格質地的強度具有调控作用.”

31) 周震. 从“腎主骨”与“少陽主骨”的关系谈骨之体用. 天津中醫藥. 2014. 31(1). pp.20-22. “这两个观点虽然可以佐证胆与骨的关系, 但仍略牵强.”, “因此其所指应为十二正经之胆经, 而非六腑中的胆”, ““骨所生病”应为骨关节的诸多痛症而非骨骼本身的器质性病变.”

32) 全元起本은 남아있지 않으나 『素問熱論』에 대한 新校正按語에 인용된 注文에 그의 견해가 노정되어 있다.

33) 王冰 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2015. p.157. “元起注云, 少陽者肝之表, 肝候筋, 筋會於骨, 是少陽之氣所榮, 故言主於骨.”

34) 楊英昕 등. 从足少陽主骨所生病论治软组织损伤. 辽宁中醫雜誌. 2011. 38(11). p.2186. “足少陽主骨所生的病, 筋附于骨, 那么足少陽主骨所生病即为筋病.”, “而骨的功能活动, 为附于骨之筋, 更侧重于少阳.”

말한다면 새로이 ‘少陽主骨’을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여, 결과적으로 ‘少陽主筋’은 타당하지 않고 ‘少陽主骨’의 독자적인 의미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sup>35)</sup>

#### (4) 少陽之氣의 升發이 骨의 生長을 促進한다고 본 견해

范薇 등은 少陽主骨이 발현되는 한 단면을 봄에 비로소 상승하는 少陽之氣의 성격을 통해 설명하였다. 『素問四氣調神大論』 등의 언급을 통해 肝膽의 升發하는 성질을 소개하고 이것이 骨의 生長, 發育을 촉진하는 데에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sup>36)</sup> 앞서 소개한 景岳의 논설이 주로 骨質을 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이는 성장 과정에서의 骨의 生長에 초점을 두고 있다.

#### (5) 腎主骨과의 관계 설정을 통한 少陽主骨의 의미 이해

일반적으로 『黃帝內經』의 骨에 관련된 이론으로 腎主骨과 少陽主骨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이 중 腎主骨은 그 서술이 명확하고 의미도 비교적 명료하여 명확히 인식된다. 반면 少陽主骨에 대한 서술은 명료하지 않을 뿐더러 그 양이 많지 않아 명확히 인식하기에 난점이 있다. 그러므로 少陽主骨의 독자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腎主骨 이론과 비교하여 관련성 및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도 학계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두 가지가 주관하는 대상 및 기능의 분화를 파악하여 그 차이점을 위주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가지의 상호 협조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관련성을 위주로 드러내는 것이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주로 體用論을 도입하여 양방면으로 인식하였고, 후자의 관점에서는 乙癸同源의 이론을 도입하여 腎과 少陽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히 관련된 肝을 아울러 고찰하여 臟腑, 經脈의 협응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① 骨의 體用 관계를 통한 이해

먼저 腎主骨과 少陽主骨의 관계를 각각 骨의 體用的 서로 다른 차원을 주관하는 것으로 설정한 관점이 있다. 劉舟는 가장 앞선 시점에 骨의 體用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腎이 先天之本이 되어 腎主骨하는 것은 骨의 體에 치우친 이론으로, 骨質의 강함을 의미하여 형체를 지탱하도록 하는 작용을 의미하고, 少陽이 樞로서 氣機를 暢達시켜 少陽主骨하는 것은 骨의 用에 부합하는 이론으로, 骨의 운동에서의 關節滑利, 活動自如, 感覺靈敏, 協調平衡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兩者는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갖는다고 부연하였다.<sup>37)</sup> 상당히 명쾌하게 體用的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다만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周震은 이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素問上古天真論』, 『素問陰陽應象大論』, 『素問脈要精微論』에 나타난 腎主骨 혹은 腎生骨髓과 관련된 언급들을 바탕으로 腎主骨을 骨의 體에 배속하였다. 腎氣가 충실해지면 골격이 따라서 성장발육하며, 腎氣가 허쇠해지면 골격도 쇠약해지며, 腎虛, 腎精不足하여 骨髓가 영양되지 못하면 골격이 취약, 무력해진다. 그러므로 腎主骨은 腎精이 骨格의 물질 기초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sup>38)</sup>

35) 司譽豪 등. 论“少阳主骨”理论研究进展及其与胆源性骨病的关系. 上海中医药杂志. 2016. 50(10). p.36. “笔者自以为此种说法并不妥当, 筋虽会于骨, 然筋并不等同于骨 ……《黄帝内经》中已有“肝主筋, 肾主骨”的表述, 自可直言“少阳主筋”, 大可不必又言“少阳主骨”, 由此可见, “少阳主骨”另有其意。”

36) 范薇 등. 《黄帝内经》“少阳主骨”中医机理探析.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16. 22(5). pp.590-591. “厥阴少阳升发之气促生骨”, “故骨的生长发育和功能活动的正常进行, 必借肝胆升发之气。”

37) 劉舟. 从《伤寒论》中的“支节烦疼”进而探讨《内经》中的“少阳主骨”. 光明中医. 2004. 19(6). p.1. “总之, 肾为先天之本, 肾主骨, 偏于骨之体少阳为阳枢, 流通畅达, 不郁不结, 恰主骨之用. 骨之体, 其质刚, 方能支撑人形骨之用, 重在关节滑利、活动自如、感觉灵敏、协调平衡. 骨之体存则骨之用强, 骨之用弱则骨之体衰, 二者相互依存, 刚柔相济。”

38) 周震. 从“肾主骨”与“少阳主骨”的关系谈骨之体用. 天津中医药. 2014. 31(1). pp.20-22. “肾气会不断充实, 骨骼也会随之生长发育, 而当年老肾气虚衰时, 骨骼也会随之逐渐

한편, 少陽主骨은 骨의 用을 주관하는 것으로 배속하였는데, 주로 少陽主骨의 양상이 나타난 『靈樞經脈』 등의 병리 기술을 근거로 骨格의 기질적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關節의 병을 주로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骨’의 개념을 骨格의 ‘骨’ 뿐만 아니라 骨과 骨 사이의 關節, 그 주위를 묶어 더욱 강하게 하는 결합성 인대조직을 포괄한다고 정의하였고, 『素問診要經終論』의 ‘百節皆縱’, 『靈樞根結』의 ‘骨蠶’와 같은 병증을 예시하여 이들이 주로 足少陽膽經의 經氣가 不利하여 關節을 滋養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즉, 少陽主骨은 骨의 用의 차원, 關節에서 일어나는 骨의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9)</sup>

② 乙癸同源을 통한 이해

乙癸同源은 肝腎同源과 같은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肝이 藏血하고 腎이 藏精하여 精血이 상생하는 관계가 있어 두 臟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을 특별히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는 骨에 대한 명제 중 좀 더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腎主骨을 少陽主骨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李中樞의 『內經知要』에서 나타나는데, 『靈樞經脈』의 내용에 대한 注文에서 “膽而主骨病者, 乙癸同源也”라고 하였다.

현대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少陽主骨을 腎主骨과 연계하여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腎과 膽 사이에 있는 肝의 지위를 해명하고자 이 이론을 도입한 경우가 많은데, 范薇 등과, 周震, 劉舟는 모두 乙癸同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周震은 가장 기본적인 乙癸同源의 의미에 입각하여, 肝腎이 주관하는 精血이 상호 滋生하는데 이러한 精血이 骨格을 이루는 筋骨을 滋養함으로써 骨格의 強健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sup>40)</sup>

衰弱”, “如果肾虚肾精不足, 骨髓失养则可致骨骼脆弱无力”, “由此可见, 骨骼的实质, 即骨之体, 有赖于肾精的滋养。”  
 39) 周震. 从“肾主骨”与“少阳主骨”的关系谈骨之体用. 天津中医药. 2014. 31(1). pp.20-22. “综上所述, 足少阳胆经主诸关节病痛.”, “中医理论认为“骨”的概念不仅指人体骨骼之骨, 还应包括骨与骨之间的关节及其周围维系、加强关节结构的韧带组织”, “由此可推断古人认为少阳胆经主骨之用.”

劉舟는 李中樞가 설명한 것과 같이 肝을 瀉하는 것이 腎을 瀉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乙癸同源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肝腎이 相火를 함께 부리며 특히 膽은 肝 중에서 疏泄을 담당하는데, 만약 肝의 疏泄 작용이 太過하면 腎의 封藏 작용이 不及하여 骨을 손상케 하니 이것이 少陽主骨의 의미라고 설명하였다.<sup>41)</sup>

范薇 등은 腎은 藏精하며 精은 臟腑 기능을 推動, 促發시키며 生장발육을 促進시키는데, 腎의 精의 활동은 元氣의 활동에 의지하며 元氣는 肝의 疏泄에 의해 촉진되므로 이를 통해 骨과 關節의 정상 발육이 추동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sup>42)</sup> 肝의 疏泄이 骨의 滋養에 기여하는 부분에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乙癸同源을 통한 설명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司譽豪 등은 乙癸同源은 精血化生의 측면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少陽主骨은 『黃帝內經』에서 開闔樞의 맥락에서 논술된 것으로 동일한 차원에서 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sup>43)</sup> 즉 開闔樞와 같은 經脈의 氣化 차원에서 논해진 개념이므로 그것의 質的 生성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6) 少陽의 樞 작용을 통한 少陽主骨 이해

『靈樞根結』의 ‘骨蠶’에 대한 서술은 『黃帝內經』에서 임상적인 少陽主骨의 사례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서술 중 하나이며, 특히 ‘樞折’을 언급하여 少陽의 樞 작용이 少陽主骨에 관련됨을 명확히 제시한

40) 周震. 从“肾主骨”与“少阳主骨”的关系谈骨之体用. 天津中医药. 2014. 31(1). pp.20-22. “肝腎之精血充盈与否直接决定人体筋骨是否强健”  
 41) 劉舟. 从《伤寒论》中的“支节痲疼”进而探讨《内经》中的“少阳主骨”. 光明中医. 2004. 19(6). p.1. “若肝之疏泄太过, 则腎之封藏不及, 可出现遗精梦泄等病理改变, 骨中之髓既耗, 日久则齿骨枯槁. 故曰少阳主骨.”  
 42) 范薇 등. 《黄帝内经》“少阳主骨”中医机理探析.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16. 22(5). pp.590-591. “只有肝胆之气正常升发, 元气才能布达全身, 推动激发脏腑功能, 推动人体生长发育, 推动全身骨与关节的正常发育”  
 43) 司譽豪 등. 论“少阳主骨”理论研究进展及其与胆源性骨病的关系. 上海中医药杂志. 2016. 50(10). p.36. “乙癸同源是从精血化生角度言, 而《黄帝内经》中“少阳主骨”是在太阳、阳明、少阳的开、合、枢的语境下论述的, 可见如此解释并不足以令人信服.”

중요한 서술이다. 그래서 少陽主骨을 이해함에 있어 少陽의 樞 작용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관점 중 하나이나,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이 관점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미비하다. 다만 少陽主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와중에 少陽樞에 대한 관점을 노출시킨 경우는 발견된다.

馬勇은 樞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관점을 담았는데, 『素問陰陽離合論』의 언급을 바탕으로 樞에 대해 『說文解字』 및 『辭海』와 같은 서적을 통해 문자학적 분석을 기하였다. 그는 樞를 인체 운동의 범주에서 이해하여 기계적인 ‘樞機’의 의미로 이해하고 關節을 그 실체로 보았다.<sup>44)</sup>

周震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발견된다. 少陽은 三陽의 樞이자 陰陽 전체의 樞로 ‘樞機’가 되는데, 인체 관절은 骨格에서 樞機의 역할을 하므로 少陽이 樞機로서 開闔을 돌리는 것이 인체 관절이 운동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설명하였다.<sup>45)</sup> 즉, 樞機로서의 少陽이 骨格의 기계적인 역할에 비유하면 關節에 부합하며, 이는 開闔을 조절하는 것과 같이 關節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연연중에 제시한 것이다.

劉舟는 좀 더 나아가 少陽의 樞 작용에 의하여 ‘流通暢達’이 이루어져 鬱結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關節의 원활한 활동과 협조,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서술하였다.<sup>46)</sup> 앞의 견해가 구조적 유사성을 통해 樞 개념을 운동이 일어나는 기계적 요소인 關節에 단순히 대응시킨 것이라면, 이는 樞의 작용의 본래 목적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한 발 나아

간 견해라고 생각된다.

이밖에, 樞의 작용을 少陽이 疏泄하여 氣를 이롭게 通暢시키는 역할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周震은 少陽이 樞機로서 氣를 通達하게 하는 것이 筋과 骨의 협동 운동에 필요하며, 少陽經氣가 不利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다.<sup>47)</sup>

지금까지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 기존 연구의 少陽主骨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보면, ‘少陽’의 의미에 대한 견해, ‘主’하는 방식에 대한 견해, ‘骨’의 실체에 대한 설명으로 나누어 정리해볼 수 있다.

‘少陽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少陽主骨을 이해하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少陽主骨을 설명하는 열쇠와도 같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經脈 순행 노선’을 중심으로 본 견해, ‘膈’을 중심으로 본 견해, ‘升發하는 少陽之氣’로 본 견해, ‘少陽의 樞 작용’을 중심으로 본 견해 등이 존재한다. 經脈 순행 노선을 중심으로 본 견해와 膈을 중심으로 본 견해는 일정 부분 상호 대립하고 있다.

‘骨’의 실체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少陽主骨의 작용의 실질적인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骨의 骨質 자체’로 보는 견해, ‘骨을 움직이는 筋’으로 보는 견해, ‘骨의 운동이 일어나는 關節’로 보는 견해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 중 전적으로 ‘筋’으로 보는 견해는 소수이지만 乙癸同源을 도입한 관점은 肝主筋을 염두에 두고 있어 관련이 있다. ‘骨의 骨質 자체’로 보는 관점은 주로 骨質을 滋養, 生成하거나 生長, 發育시키는 작용과 관련이 있다. ‘骨의 운동이 일어나는 關節’로 보는 견해는 주로 體用論을 도입한 관점에서 少陽主骨을 설명한 경우, 그리고 少陽의 樞 작용을 통해 少陽主骨을 설명한 경우에 나타난다.

少陽이 骨을 ‘主’하는 방식은 少陽主骨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나타내느냐의 문제인데, 이 작용은 바로 앞의 대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대상

44) 馬勇. 施杞另辟蹊径论治膝骨关节炎——“少阳主骨”辨析. 中国临床解剖学杂志. 2017. 23(11). 1537. “施杞认为人体运动的概念范畴极为广泛, 而单纯就人体的机械运动而言, 其关键必在关节, 因此关节就是人体机械运动的“枢机。”

45) 周震. 从“肾主骨”与“少阳主骨”的关系谈骨之体用. 天津中医药. 2014. 31(1). pp.20-22. “少阳经既为三阳之枢又为阴阳之枢, 即为枢机. 人体各关节以运动为主, 恰似人体骨骼之枢机, 关节的运动可以看做是骨骼的功用. 胆为腑属阳, 少阳胆经亦属阳, 主枢机转动开闔, 与人体关节之运动相应。”

46) 劉舟. 从《伤寒论》中的“支节烦疼”进而探讨《内经》中的“少阳主骨”. 光明中医. 2004. 19(6). p.1. “少阳为阳枢, 流通畅达, 不郁不结, 恰主骨之用 …… 骨之用, 重在关节滑利, 活动自如, 感觉灵敏, 协调平衡。”

47) 周震. 从“肾主骨”与“少阳主骨”的关系谈骨之体用. 天津中医药. 2014. 31(1). pp.20-22. “而筋与骨结合并协同运动需要少阳胆经枢机的通达. 如果少阳经气不利则会出现关节运动不利或疼痛的症状。”

을 ‘骨質 자체’로 본 경우는 주로 滋養을 의미하는 데, 일부의 경우에는 生長을 촉진하는 작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筋’을 대상으로 본 경우에도 筋을 滋養하여 영화롭게 하는 작용을 말한다. 대상을 ‘關節’로 본 경우에는 骨을 움직여 운동을 일으키는 작용을 말한다.

## 2) 기존의 논의 비판

### (1) 기존의 각 견해에 대한 비판

‘經脈 순행 부위를 통한 少陽主骨 이해’에서는 『靈樞經脈』의 足少陽膽經 所生病이 나타나는 骨 관련 부위가 足少陽膽經의 순행 노선에 국한된 것으로 볼 것인지, ‘諸節皆痛’을 중심으로 전신적인 증후로 볼 것인지를 관점이 상호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대립을 살피기에 앞서 이 논점이 사실적으로 옳은 것인지, 또 이를 통해 少陽主骨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단 이 논점에서 제시된 ‘절대적으로 많은 骨, 關節이 足少陽膽經의 순행 노선에 속한다.’는 명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足少陽膽經의 순행 노선을 살펴보면 인체의 광범위한 영역을 순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영역을 나타내는 足陽明胃經에 비하여 足少陽膽經만이 특징적으로 骨, 關節을 주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과장해서 기술한 것으로, 논의의 조건이 되는 명제가 옳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논의 역시 옳지 않다.

또, 이 명제의 可否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를 통해 少陽主骨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靈樞經脈』에서 논해진 所生病의 종류를 보면 筋骨, 氣血, 津液 등이 있는데 이들 중 氣血, 津液은 經脈이 순행하는 부위로서 논할 수 있는 성질의 대상이 아니며, 骨 역시 동일한 층차로 논해지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순행 부위를 통해 논할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순행 노선을 통해 少陽主骨을 설명하는 근거로 所生病의 증후<sup>48)</sup>를 들고 있는

데, 所生病의 증후들은 위와 같은 筋骨, 氣血, 津液 등이 주관되는 기전의 문제로 과급된 것이므로 이를 통해 少陽主骨을 증명하는 것은 오히려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원인을 설명한 것과 같다.

‘腑인 膽을 통한 少陽主骨의 이해’에서는 膽이 少陽主骨의 실질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 그리고 少陽主骨은 骨의 骨質을 구성하는 작용을 말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전자가 少陽主骨의 ‘少陽’의 실체에 대한 논점이라면 후자는 少陽主骨의 대상인 ‘骨’의 실체에 대한 논점이다.

전자의 견해를 통해 少陽主骨의 주체가 經脈(足少陽膽經)인지, 腑(膽)인지의 대립이 나타난다. 少陽主骨은 명명된 바와 같이 三陰三陽으로서의 少陽을 말한 것이므로 經脈에 중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經脈도 臟腑가 발휘하는 기능과 관련성을 갖고 배합되어 있으므로 전적으로 하나에 치우쳐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經脈의 성질과 臟腑의 기능을 종합하는 총체적 관점에서 少陽主骨이 적용된 임상적 서술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司譽豪 등이 균형잡힌 비판을 제출한 바 있다.<sup>49)</sup>

후자의 견해는 少陽主骨의 내용에 관한 중요 견해인데, 이 견해는 景岳의 注로부터 제출된 것이다. 景岳이 제시한 것은 中正之官으로서 決斷을 내는 膽의 氣가 ‘剛’하기 때문에 그에 의하여 주관되는 骨의 質도 ‘剛’의 성질을 띤다는 것인데, 同氣相通의 이치를 적용한 것이다. 현대 연구자들도 이러한 견해를 따라 膽의 剛氣에 의하여 骨 자체의 強度가 결정되는 기전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黃帝內經』에 소개된 少陽主骨의 임상적 사례들은 주로 關節의 문제로 기술되는데, 이 견해는 骨質을 少陽主骨의 ‘骨’의 실체로 보는 것이므로 상호 부합하

及諸節皆痛.”

49) 司譽豪 등. 论“少阳主骨”理论研究进展及其与胆源性骨病的关系. 上海中医药杂志. 2016. 50(10). p.36. “可见气在少阳经中居重要地位, 胆气与足少阳胆经密不可分, 胆气充盈与否与足少阳胆经功能是否正常息息相关, 故绝不可割裂两者间联系。” 膽과 足少陽膽經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膽氣의 충족과 足少陽膽經의 기능의 정상 발현은 밀접하므로 두 가지를 완전히 가릴 수 없다고 보았다.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2. “頭痛, 頰痛, 目銳皆痛, 缺盆中腫痛, 腋下腫, 馬刀俠瘦, 汗出振寒, 瘧, 胸脇肋髀膝外至脛, 絕骨, 外果前

지 않는다. 앞서 소개한 周震의 비판적 견해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膽氣의 剛이 質的인 剛을 형성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도 반론의 여지가 있다. 景岳이 말한 바와 같이 膽은 中正之官으로 決斷을 내는데, 이러한 작용은 때의 변화를 따라 中正을 가리는 판단력과 이를 시행하는 행동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오히려 상황에 대한 넓은 관찰과 유연한 사고 가운데에서 이러한 특징이 발현될 수 있다. 이는 질적인 단단함과는 다른 것이므로, 膽의 성격이 骨質의 단단함과 相通한다고 보기 어렵다.

‘少陽主骨의 ‘骨’의 실질을 ‘筋’으로 본 견해’는 少陽主骨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司醫豪 등의 비판이 이미 존재하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少陽과 肝의 관계, 肝主筋은 상식적인 면에서 모두 사실로 수긍할 수 있으나 骨에 모이는 筋과 骨 자체를 혼동할 수는 없다. 또한 少陽主骨의 작용을 肝主筋, 腎主骨과 같이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작용으로 치환하여 이해한다면 애초에 ‘少陽’을 들어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점에 대한 논의는 少陽主骨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少陽之氣의 升發이 骨의 生長을 促進한다고 본 견해’는 少陽主骨에서 少陽의 氣의 특성을 통해 主骨 작용을 설명하고자 제기된 논점이다. 少陽之氣가 升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상식의 영역에서 인정되며 이것이 전신적인 氣機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骨의 生長發育을 촉진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는 少陽主骨에 대한 타당한 논증을 거친 설명이라 할 수 없고 향후 검토해볼 수 있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일 수 있다.

‘腎主骨과의 관계 설정을 통한 少陽主骨의 의미 이해’는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少陽主骨의 의미에 대한 가장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진 논점이다. 『黃帝內經』의 少陽主骨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主骨’을 표방한 腎主骨의 작용과의 비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

계론(體用論, 乙癸同源論)을 도입하여 이들을 대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兩者의 관계를 긴밀하게 구성해내고자하는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體用論을 도입하여 대상이 되는 骨을 양면으로 나눈 논점은 腎主骨과 少陽主骨의 관계를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體用은 본래 表裏一體의 불가분의 관계로 상정되는데, 腎主骨과 少陽主骨의 骨에 대한 작용이 이와 같은 관계로 제시되었다고 볼 개연성은 충분치 않다. 이 견해를 제시한 학자들은 대체로 骨의 물질적 구성 작용과 물리적 운동 작용을 대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형태와 기능’ 정도의 개념으로 표현 가능하며 굳이 體用論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점을 택한 것은 비교적 명확한 인식이 가능한 腎主骨의 개념을 디딤돌삼아 반대편으로 상징된 少陽主骨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腎主骨과의 비교는 兩者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정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보다 少陽主骨 자체의 의미를 설명해 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乙癸同源을 도입한 논점도 유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乙癸同源은 기존 의학 이론으로서 肝腎의 협응 관계를 의미하는데 肝腎이 筋骨의 濡養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말한다. 이를 少陽主骨의 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으로 제시한다면 타당하지만, 이 자체를 少陽主骨의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대체로 體用論, 乙癸同源論과 같은 기존 관계론에 의한 관계 설정에 매몰되어 정작 少陽主骨이라는 작용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희석되어 버리는 경향성이 있다.

그럼에도 骨의 體用 중 骨之用으로 제시된 少陽主骨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설명에서 실제 병증을 바탕으로 少陽主骨의 내용을 關節에서 일어나는 骨의 운동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한 논거를 갖고 서술되어 설득력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少陽의 樞 작용을 통한 少陽主骨 이해’의 논점에 대해서는 少陽의 樞 작용을 통해 少陽主骨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開闔樞는 三陰三陽의 개별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개념이므로 少陽主骨

에서 少陽이 갖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탐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樞’의 문자적 의미를 骨의 운동에 적용하여 운동 과정에서 樞의 역할을 나타내는 ‘關節’이 少陽主骨의 실질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일부 연구에서 더 나아가 關節의 운동을 원활케 하며 협조, 평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작용의 의미까지 설명한 것은 의미있는 통찰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少陽主骨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생각된다. 『黃帝內經』에 언급된 少陽主骨의 임상적 사례들과 실질적으로 부합하며 그 작용도 樞의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견해는 서로 산발적으로 제시된 견해들이며, 少陽主骨을 少陽의 樞 작용을 중심으로 일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 견해들과 뒤섞여 제시되어 있어 少陽主骨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少陽의 樞 작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疏泄을 통해 氣를 暢達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대동소이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인식은 樞 작용 본래의 성격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樞 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일 뿐인데, 氣가 暢達하기 위해서는 少陽의 樞 작용뿐만 아니라 여타 臟腑, 經脈의 활동이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馬勇이 樞 개념이 關節에 해당함을 밝히고, 周震, 劉舟 등이 少陽主骨의 의미에 대해 운동의 ‘조절, 협조, 평형’ 등으로 진일보한 설명을 제시하였음에도, 少陽의 樞 작용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리고 樞 개념은 少陽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少陰에도 관련되어 있어 少陽의 樞 작용이 특별히 主骨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주지하다시피 少陽은 膽, 三焦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어, 少陽의 樞 작용이 실제로 膽, 三焦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논점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少陽의 樞 작용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않다.

### 3) 종합 및 연구 방향 모색

각 견해에 대하여 비판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기존에 제출된 ‘經脈 순행 부위를 통한 少陽主骨 이해’, ‘腑인 膽을 통한 少陽主骨의 이해’, ‘少陽主骨의 ‘骨’의 실질을 ‘筋’으로 본 견해’, ‘少陽之氣의 升發이 骨의 生長을 促進한다고 본 견해’, 그리고 ‘乙癸同源을 통한 少陽主骨 이해’에서는 논리적인 한계나 논거의 부족, 해석 과정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관점을 통해 少陽主骨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腎主骨과 少陽主骨의 비교’에서 體用으로 분별한 견해는 무리하게 兩者에 관계성을 부여한 측면을 제외하면 少陽主骨에 대한 설명은 참조할만하다. 또, ‘少陽의 樞 작용을 통한 少陽主骨 이해’는 少陽主骨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를 보여 주고 있고, 진일보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어 상당히 유용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 대한 이상의 분석을 통해 少陽主骨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기존 견해 중 腎主骨과의 비교를 통한 少陽主骨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설명들은 대체로 少陽主骨을 일으키는 少陽의 의미보다는, 少陽主骨이 작용하는 대상(骨)이나 主骨의 방식(主) 등의 실질적인 작용 양상에 대한 설명이 합리적인 편이다. 반면 少陽의 樞 작용을 통한 이해는 少陽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의미있는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으며, 특히 『黃帝內經』에 少陽樞와 主骨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한 서술이 있기 때문에 少陽主骨을 설명하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의 논의는 일부 취할 점이 있으나, 少陽의 樞 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통하여 수립된 견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3. 少陽의 樞 작용과 少陽主骨의 의미

### 1) 少陽의 樞 작용

#### (1) 開闔樞에서의 ‘樞’의 기능

開闔樞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 경향성으로 대별된다. 開闔樞의 열고 닫고 중

개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위주로 인식하여 内外의 氣를 소통시키는 의미로 인식하는 견해와, 문의 물질적 구성요소에 비유하여 외부 사기의 침입을 막고 내부 正氣의 유출을 막는 차단과 보존의 역할로 인식하는 견해이다.<sup>50)</sup>

開闔樞 중 ‘樞’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兩者의 차이가 비교적 적다. 樞의 역할은 전자의 견해에서는 ‘중개자’의 역할을 의미하며 후자의 견해에서는 ‘지도리’에 비유되는데, 능동적인 조절의 역할과 수동적인 균형 유지라는 정도의 의미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開闔의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성격의 象으로 이해할 수 있다.

‘樞’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참조하면, 박찬국은 “그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잘 조절한다는 것 즉 문의 함부로 닫히거나 열리지 않게 하고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열리고 닫히도록 조절해주는 것을 樞”<sup>51)</sup>라고 하였고, 장우창은 “분열과 통일의 추세를 조절하는(樞) 운동”<sup>52)</sup>이라고 하였으며, 조용주 등은 “樞는 調節의 의미”<sup>53)</sup>라고 설명하였다. 대체로 陰陽이 離合하는 추세에 대한 ‘調節’ 및 内외의 陰陽의 흐름 사이에서 仲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 樞의 調節 기능을 통한 恒상성의 유지

### ① 少陽의 樞 작용에 관련된 膽의 특성

少陽主骨에 대한 기존 연구들 중 少陽의 樞 작용을 통해 살펴 본 관점은 ‘樞’라는 글자가 가진 ‘樞機’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樞는 少陽뿐만 아니라 少陰에도 해당하며, 少陽樞로 국한시키더라도 膽, 三焦가 관련되어 있어 少陽主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樞 기능에 관련된 六經, 臟腑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靈樞根結』에 서술된 開闔樞의 병증을 살펴보면, 주로 三陽의 開闔樞의 병증은 皮肉, 筋肉, 骨 등의 表의 문제로 나타나며<sup>54)</sup>, 三陰의 開闔樞의 병증은 倉廩, 脈 등의 裏의 문제로 나타난다.

또, 少陽의 樞 작용은 주로 ‘膽’과 깊은 관련성을 나타낸다. 少陽의 樞 작용에 관련된 腑로는 膽과 三焦가 있다. 三焦는 『黃帝內經』에서 주로 ‘水道’의 기능<sup>55)</sup>으로 소개되는데, 기존 연구에서 인체 津液의 輸布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작용은 樞 작용의 성격과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黃帝內經』에 나타나는 膽에 대한 설명은 樞의 작용의 특성을 잘 설명해준다. 무엇보다 少陽主骨이 제시된 『靈樞經脈』과 『素問熱論』의 맥락에서 ‘少陽’은 足少陽膽經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膽을 중심으로 少陽樞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 …… 凡十一藏取決於膽也.<sup>56)</sup>

『素問靈蘭秘典論』

帝曰, 有病口苦, 取陽陵泉, 口苦者, 病名爲何, 何以得之. 岐伯曰, 病名曰膽瘧. 夫肝者中之將也, 取決於膽, 咽爲之使. 此人者, 數謀慮不決, 故膽虛, 氣上溢, 而口爲之苦.<sup>57)</sup>

『素問奇病論』

『素問靈蘭秘典論』의 서술에 따르면 膽은 “中正”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決斷”

50) 백유상. 三陰三陽 開闔樞 理論의 臨床의 活用に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3). p.127.

51) 박찬국. 三陰三陽과 氣의 변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5. 9. p.5.

52) 장우창. 『素問陰陽離合論』의 醫學思想에 대한 一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3). p.86.

53) 조용주, 김진주. 開闔樞 기능에 관한 研究. 경락경혈학회지. 2008. 25(1). p.36.

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50. “開折則肉節瀆而暴病起矣. …… 瀆者, 皮肉宛焦而弱也. 闔折則氣無所止息, 而痿疾起矣. …… 樞折即骨繇而不安於地 …… 骨繇者, 節緩而不收也. 所謂骨繇者, 搖故也.”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4.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4.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p.176-177.

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이 때 中正은 ‘不偏不倚’의 뜻<sup>58)</sup>으로 설명된다. 한편, 『素問奇病論』의 서술에 의하면 ‘決斷’은 肝의 ‘謀慮’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謀慮’는 어떤 일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현실의 조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일의 전개 가능성에 대응하여 일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謀慮’는 궁극적으로 현실에서의 실행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決斷’이다. 決斷을 내리기 위해서는 是非를 공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앎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조건에 비추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판단(中正)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다.<sup>59)</sup>

이와 같이 膽이 中正을 추구하여 決斷을 내리는 작용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복잡다단한 변수들에 대한 調節을 의미한다<sup>60)</sup>. 그러므로 膽의 기능은 調節과 仲裁로 표현되는 少陽의 樞 작용을 일으키는 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少陽의 樞 작용에 의한 항상성의 유지

少陽의 樞 작용이 ‘조절’을 수행하는 목적은 항상성의 유지에 있다. 中正을 추구하는 것은 “中立而不倚”의 뜻으로, 외부의 상황에 조화되면서도 상황 논리에 편승하지 않고 굳건히 절도를 지켜나감으로써 강함을 지니게 된다.<sup>61)</sup> 이러한 ‘강함’은 ‘自強不息’의 의미와 통하며 ‘不息’은 곧 ‘오래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sup>62)</sup>, 이 ‘오래함’은 ‘항상성’으로 환

언될 수 있다.

항상성은 하나의 상태를 고집하는 정적인 ‘고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中正이 전제된 決斷이 끊임없이 일어남으로써 항상성의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強’은 質의인 단단함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함에서 나오는 내면의 강함이자 정신적인 강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63)</sup>

## 2) 少陽主骨의 의미

### (1) ‘骨’의 의미

少陽主骨에서의 ‘骨’의 의미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견해 중에서는 ‘骨이 만나는 關節’로 보는 것이 『黃帝內經』에 서술된 少陽主骨의 여러 임상적 사례들을 종합하여 도출된 가장 근사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명확히 ‘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것의 의미를 ‘關節’이라는 술어로 한정하는 것은 본래의 原文의 문자가 가진 의미값을 상당 부분 변형시키는 해석이므로 ‘骨’의 본뜻에 보다 가까운 이해의 방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앞서 『黃帝內經』에 서술된 少陽主骨의 여러 임상적 사례의 병증들은 주로 脾, 腰, 項, 髀 등 인체를 支持하는 중요 關節들의 문제로서 전신적 骨의 균형 유지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찰 결과에 따라 少陽主骨의 ‘骨’을 그 문자적 의미에 가깝게 정의한다면 ‘骨格’ 혹은 ‘骨格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전신의 骨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是故，謹和五味，骨正筋柔，氣血以流，腠理以密，如是，則骨氣以精，謹道如法，長有天命。

『素問生氣通天論』

p.101. “故至誠無息，不息則久，久則微，……”

63) 앞서 비판한 張景岳의 少陽主骨에 대한 견해는 膽의 특성에 착안하였지만 ‘강함’의 의미에 대하여 이와 달리 質의인 면에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바로 앞에서 예로 든 『中庸』의 ‘強’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한 것은 ‘남方的 強’에, 張景岳이 말한 것은 ‘북方的 強’에 해당한다고 대비해 볼 수 있다.

58) 汉语大词典编辑委员会. 汉语大词典(第一卷). 上海. 汉语大词典出版社. 1995. p.585. “【中正】1.得當; 不偏不倚. 2. 正直; 忠直. 3.指正直之士. 4.猶純正. 5.指正道.”

59) 김혁제 교열. 原本備旨大學中庸. 서울. 명문당. 2010. p.20.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60) 박찬국. 《素問》『陰陽離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2. 6. p.136. “이 決定權은 調節을 意味하고 仲裁를 意味하는 것이다.”

61) 김혁제 교열. 原本備旨大學中庸. 서울. 명문당. 2010. pp.25-27. “子路問強, …… 寬柔以教, 不報無道, 南方之強也, 君子居之. 衽金革, 死而不厭, 北方之強也, 而強者居之. 故君子和而不流, 強哉矯, 中立而不倚, 強哉矯 ……”

62) 김혁제 교열. 原本備旨大學中庸. 서울. 명문당. 2010.

이와 같은 의미로 ‘骨’을 사용한 용례는 『黃帝內經』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위 문장에서는 五味를 조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骨正’을 말하였다.

이러한 ‘骨正’의 의미는 少陽의 樞 작용의 목표와 상통한다. 少陽이 樞 작용을 통해 ‘中正’을 구현한다고 보았을 때, 이것이 骨에 적용되어 骨格의 中正을 추구하는 것을 ‘骨正’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正’은 中正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中正은 언제나 전체적인 조화를 염두에 둔 개념이므로, ‘骨’ 역시 개별적인 骨에 국한시킬 수 없으며 ‘骨格’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主’의 의미

少陽主骨에서의 ‘主’의 의미는 앞서 정의한 ‘少陽’과 ‘骨’의 의미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少陽’은 少陽의 樞 작용으로 보았는데 그 실제는 항상성의 유지를 위한 調節 작용이며, ‘骨’은 ‘骨格’ 혹은 ‘骨格 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少陽의 樞 작용이 骨格에서 발현된 것이 少陽主骨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의 骨格 구조는 수많은 개별적인 骨과 이것을 이어주는 關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형태적인 항상성을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인체의 자세를 지지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少陽의 樞 작용이 필요한데, 骨格의 ‘中正’, 즉 骨格의 형태적인 균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외부의 조건에 따라 ‘決斷’하여 전체 骨格 구조를 ‘調節’해 나가게 되는 과정으로, 이것이 바로 少陽主骨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목적으로부터 기원한 작용이 骨格을 구성하고 있는 骨, 關節 등의 세부 요소에 미치게 되면서 각 요소들에서도 미세한 조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3) 少陽主骨의 실조에 따른 證候 발현 기전

少陽主骨 실조의 임상적 표현이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된 『靈樞根結』의 내용을 통해 少陽主骨의 의미를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骨繇’의 원인을 ‘搖’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繇’와 ‘搖’의

의미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한 것이다.<sup>64)</sup>

‘搖’는 ‘흔들린다’는 것인데, 이러한 양상은 決斷이 내려지지 않음으로써 中正을 이루는 데에 실패한 震動搖하는 모습과 같다. 한편, ‘繇’는 ‘徭役’이라는 뜻이 기본적인 의미이며 『說文解字』에 “隨從也”<sup>65)</sup>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조할 때 ‘자신의 의지가 결여된 채 끌려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決斷을 통한 調節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搖) 결과적으로 骨이 전체 骨格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주체적으로 협응하지 못하고 ‘徭役’을 하는 人夫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듯 균형있는 움직임은 상실한 것(繇)을 형상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節緩而不收’는 ‘骨繇’라는 이름의 함의가 반영된 구체적 증후 양상을 기술한 것이다. 전체 骨格과의 긴밀한 협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요하여 어긋나므로 關節도 본래의 조절의 역할을 잃고 늘어져 거두지 못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少陽主骨에 관련된 證候에 대한 『黃帝內經』의 서술은 이와 같은 기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III. 結 論

少陽主骨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少陽’과 ‘骨’의 의미를 통해 이들이 작용하는 ‘主’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少陽主骨을 이해하기 위하여 經脈 순행 부위, 少陽의 腑인 膽, 少陽之氣의 升發, 腎主骨과의 관계 설정, 少陽의 樞 작용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 녹아있는 이들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여 현재의 시점에서의 少陽主骨에 대한 설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보완하는 좀 더 합리적인 이해의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少陽主骨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제시한 관점들은 대체로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거

64) 張介賓 著. 懸吐國譯 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17. p.380. “繇, 搖同.”

65)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河北. 中州古籍出版社. 2006. p.643. “彡部曰. 從, 隨行也. 隨, 從也.”

나 지나치게 腎主骨과의 관련성을 강조함으로써 少陽主骨의 의미를 오롯이 설명해내지 못하였다. 그 중 少陽의 樞 작용에 대한 관점은 『黃帝內經』의 少陽主骨에 대한 서술과의 관련성이 깊어 유용한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少陽의 樞 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少陽主骨의 의미로 이어지는 설명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少陽의 樞 작용이 『黃帝內經』의 少陽主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요점이자 기존 연구를 보완해야 할 지점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少陽의 樞 작용을 통해 少陽主骨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少陽主骨에서의 ‘少陽’의 의미는 少陽의 樞 작용에서 찾을 수 있으며, 少陽의 樞 작용은 특히 膽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膽은 中正을 추구하여 끊임없는 決斷을 내리는데 궁극적으로는 오랫동안 強함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것이 少陽의 樞 작용의 ‘調節’과 관련되며 궁극적으로는 항상성의 유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少陽主骨에서의 ‘骨’은 단순히 개별적인 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신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인체의 支持라는 목표를 구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骨格’ 혹은 ‘骨格 구조’라고 표현할 수 있다.

‘少陽’과 ‘骨’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主’의 방식이므로 兩者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主’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少陽의 樞 작용이 의미하는 ‘調節’을 통한 항상성의 유지’를 실체인 骨에 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인 少陽主骨의 의미가 드러난다. 즉, 少陽主骨은 骨格의 ‘中正’, 즉 骨格의 형태적인 균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骨格 구조를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작용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少陽主骨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중국에서는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임상에서의 유용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黃帝內經』의 少陽主骨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한발 더 나아가 少陽主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이 주제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

해서는 후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헌적으로는 『黃帝內經』 이후의 少陽主骨에 관련된 의학 경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少陽主骨의 임상적 활용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少陽의 樞 작용의 실조에 의해 나타나는 骨格 구조 이상 증후와 기타 임상적 표현들과의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의학계 자체적으로 보다 많은 임상적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미 서양의학에서 기술된 습관성 탈구(habitual dislocation)나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Joint hypermobility syndrome)처럼 병리적 표현 양상에서 少陽主骨의 실조와 유사성을 보이는 질환들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 References

1. Hong WS ed.. Jeonggyohwangjenaegyong 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2. Hong WS ed.. Jeonggyohwangjenaegyong 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3. Zhang JB original work. Lee NG annot.. Leijing. Seoul. Beobin publisher. 2006.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4. Qian CC. annot.. Huandineijingtaishu. Beijing. Xueyuan Publishing House. 2006.  
錢超塵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5. Wang B annot.. Huangdineijing Suwen. Beijing. Chinese Medical Classics Publishing House. 1998.

- 王冰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医古籍出版社 2015.
6. Hanyu Da Cidian Compilation Committee. Hanyu Da Cidian. Shanghai. Hanyu Da Cidian Publishing House. 1995.  
 汉语大词典编辑委员会. 汉语大词典(第一卷). 上海. 汉语大词典出版社. 1995.
7. Zhang N. Lingsujiezhu. Shanghai. Zhejiang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86.  
 章楠. 靈素節注類編. 上海.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8. Zhang YA. Lingshujizhu. Shanghai. Shanghai Weisheng Publishing House. 1957.  
 張隱庵. 靈樞集注. 上海. 上海衛生出版社. 1957.
9. Kim HJ ed.. Wonbonbiji Daehak Jungyong. Seoul. Myungmun Publisher. 2010.  
 김혁제 교열. 原本備旨大學中庸. 서울. 명문당. 2010.
10. Xu S original work. Yu CZ annot.. Shuowenjiezhuzhu. Sanhe. Zhongzhou Classics Publishing House. 2006.  
 許慎撰,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三河. 中州古籍出版社. 2006.
11. Park CK, Choi SS. A study on Sameumsamyang 『Somun』 with 『Eumyang-ihamnon』 as the center.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2. 6.  
 박찬국, 최삼섭. 《素問》『陰陽離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2. 6.
12. Park CK. The Movement of Sameumsamyang and Ki.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5. 9.  
 박찬국. 三陰三陽과 氣의 변화. 대한한의학회지. 1995. 9.
13. Jang WC. Study on Medical Thought of 『Somun·Eumyang-ihamnon』.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8. 21(3).  
 장우창. 『素問陰陽離合論』의 醫學思想에 대한 一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08. 21(3).
14. Cho YJ, Kim JJ. A study on the function of Gae-Hap-Chu.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08. 25(1).  
 조용주, 김진주. 開闔樞 기능에 관한 研究. 경락경혈학회지. 2008. 25(1).
15. Baik YS.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Sameumsamyang Gaehapchu to Clinical Treatment - Focusing on the Explanation of Diseases and Prescription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5. 28(3).  
 백유상. 三陰三陽 開闔樞 理論의 臨床的 活用に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15. 28(3).
16. Liu Z. A study on Shaoyangzhu in Neijing through the concept of Zhijiefantong in Shanghanlun. Guangmingzhongyi. 2004. 19(6).  
 劉舟. 从《伤寒论》中的“支节痲疼”进而探讨《内经》中的“少阳主骨”. 光明中医. 2004. 19(6).
17. Wang HD et al.. Study on the theory of "Shaoyang Meridians being in charge of the bone".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2008. 28(6).  
 王鸿度 외 4인. “少阳主骨”理论考辨. 中国针灸. 2008. 28(6).
18. Yang YX, Zhang WB. Discussing the therapy about soft tissue injury through “Zu Shao Yang governs the bone”. Liaoning Journal of TCM. 2011. 38(11).  
 楊英昕, 張維斌. 从足少阳主骨所生病论治软组织损伤. 辽宁中医杂志. 2011. 38(11).
19. Zhou Z. Discussing function of bone through relationship between “kidney controls bone” and “Shao Yang in charge of bone”. Tianjin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 31(1).  
 周震. 从“肾主骨”与“少阳主骨”的关系谈骨之体用. 天津中医药. 2014. 31(1).
20. Si YH, Guo Y, Ma Y. Research progress on the theory of “Shaoyang governs the bone ” and its relationship with biliary osteopathy. Shanghai Journal of TCM. 2016. 50(10).  
 司譽豪, 郭楊, 馬勇. 论“少阳主骨”理论研究进展及其与胆源性骨病的关系. 上海中医药杂志. 2016. 50(10).
21. Fan W et al.. Analysis of “Shaoyang Dominates

the Bone”TCM Mechanism in the Inner Canon of Huangdi. *Journal of Basic Chinese Medicine*. 2016. 22(5).

范薇 외 3인. 《黄帝内经》“少阳主骨”中医机理探析.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16. 22(5).

22. Ma Y. Professor SHI Qi Way on the Treatment of Knee Osteoarthritis—An Analysis of "Shaoyang Dominates bone".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7. 23(11).

馬勇. 施杞另辟蹊径论治膝骨关节炎——“少阳主骨”辨析. *中国临床解剖学杂志*. 2017. 23(11).